

'여수 거북선축제' 명성 되찾는다

내달 3~6일 개최... 행사 대폭 보강 좌수영체험·총통발사 시연 첫 선

여수 거북선축제위원회와 (사) 전남제전보존회가 손을 잡고 쇠신과 개혁을 통해 전국 4대 축제에 들었던 '여수 거북선 축제' 옛 명성 찾기에 나섰다. 여수 거북선 축제는 46년의 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 담습과 운영 미숙 등으로 군소축제로 전락했었다.

'여수 거북선 축제'가 5월 3일부터 6일까지 여수시 이순신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제위원회는 "임진왜란 승전 420년이자 다시 찾아온 임진년을 기념하기 위해 46회째 치러지는 올해 축제에 '위풍당당! 임진년의 함성'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축제위원회에 따르면 축제는 ▲출정하는 승전의 장 ▲축제의 장 ▲시민의 장 ▲환경의 장 등 4개 테마로 구성됐으며, 방비·순시·조달·승전의 이야기를 일일별로 나눠 진행된다. 축제 첫째날인 3일 '방비의 날'에는 '통제영 길놀이'가 시민회관과 이순신광장 사이에서 펼쳐진 뒤 이순신광장에서 개막식이 열린다. 4일 '순시의 날'은 봉수 재현과 전라좌도 수군 출진식이 펼쳐지며, 5일 총통발사 시연과 동동 진법놀이, 수륙고혼 전도대제, 전라좌수영 텃밭

(사투리) 경연대회 등이 진행된다. 거북선그리기·만들기 한마당과 맨손 장어잡기, 전술 비연 만들기 등 놀이기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행사도 마련된다. 특히 전라좌수영 수군들의 병영 체험인 '전라좌수영 수영체험'과 일자진·장사진·십자진·학익진 등 이순신장군의 승전법을 풀이한 '동동 진법놀이', 전라 좌수영민들의 사투리를 모은 '전라좌수영 텃밭 경연대회', 총통발사, 불화살 시연은 올해 첫 선을 보인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조선통신사 행적따라 옛길걷기 조선통신사 옛길 한·일 우정걷기팀이 지난 23일 순천에 도착했다. 한국체육진흥회와 일본걷기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1일 서울을 출발해 목포를 거쳐 부산까지 조선통신사의 행적을 따라 걷는다. <순천시 제공>

여주시, 여수여객 고발

전단지 제거 미이행·교통방해죄 혐의

여수시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막을 틈타 공권력을 유린하는 위법·부당, 무질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여수시는 "여수여객(주)을 '전단지 배포금지 가져본 신청과 교통방해죄'로 여수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여객은 최근 시내버스 3시간에 체결한 공동 운수협정, 시내버스 공동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반 합의서와 지난 2003년 시내버스 노선변경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무력화하려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 자사 시내버스 차량에 부착 운행하면서 우편과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속 배포해

왔다. 앞서 여수시는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시내버스 대표 간담회와 3차례에 걸쳐 시내버스 차량에 부착된 전단지를 자진 제거토록 개선명령을 통보했다. 그러나 여수여객은 전단지를 자진 제거하지 않아 결국 지난 8일 여수여객 차량 54대에 부착된 전단지를 행정대집행을 통해 제거했다. 여수여객은 다른 개념인 가·종점과 차고지를 미경·가·종점과 미경 차고지를 동일한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난 3월 17일 동양교통의 사유재산인 미경 차고지로 무단 침입을 시도, 입구를 자사 시내버스로 막아 차량 전·출입을 방해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보성 추신장학회, 학생 200명에 장학금

타계한 보성출신 재일교포의 고향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성군 추신장학회(회장 김추자)는 24일 보성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제9차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회는 ▲초등학교생 50명 ▲중학교생 70명 ▲고등학교생 80명 등 총 200명에게 7100만원의 장학금을 전액 지원했다. 보성출신 재일교포 사암고 김옥남 씨가 설립한 추신장학회는 지난 2003년 설립이후 지금까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모두 1688명에게 5억787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작고한 고 김옥남 씨는 고향 마을의 전기시설을 비롯해 ▲전남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인성금 ▲보성중학교 도서관 신축금 ▲보성군 공공도서관 신축금 ▲에그니스 태풍 피해지원 ▲여성노인회관 신축금 ▲향교 외담담. 보성출신 재일교포 사암고 김옥남 씨가 설립한 추신장학회는 지난 2003년 설립이후 지금까지 지역

'슬래그 인공어초' 바다생태계 복원 효과

포스코 2년전 설치... 해초류 서식 10배 높아

철강 부산물인 슬래그(찌꺼기)를 이용한 인공어초 시설이 바다생태계 복원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는 "최근 생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년전 거문도 인공어초에 만든 철강 슬래그 어초 시설에 면적 1㎡당 4~30kg의 해초가 자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포스코는 12년전인 지난 2000년부터 포항 산업과학연구원(RIST)과 해양환경 복원방안으로 슬래그를 이용한 인공어초 '트리톤'(triton)을 연구, 바다숲을 조성해왔다. '트리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어(半人半魚)의 해신(海神)이다.

포스코는 지난 2010년 11월 철강 슬래그로 만든 인공어초 '트리톤' 510여 기를 여수시 거문도 덕촌리 마을 어장에 설치해 바다숲을 조성했다. 최근 수중촬영 확인결과 갈매·모자반·청각 등 해초류가 서식 밀도 1㎡당 평균 4kg에서 최고 30kg 가까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주변 일반 암반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슬래그는 철의 원료인 철광석, 유연탄 등에서 철을 뽑고 난 뒤 얻을 수 있는 친환경 자원으로 시멘트, 도로용 골재 등으로 사용된다. 시멘트 구조물 모양의 '트리톤'은 광합성과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칼슘

과 철 함량이 일반 골재보다 높아 해조류의 초기 부착에 적합해 바다 생태계에 최적의 생육 조건을 제공한다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전복 등 고부가가치 양식 어종의 먹이가 되는 해조류가 늘면 어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열대 숲에 비해 해조류 숲은 이산화탄소 저장 효과가 탁월해 이산화탄소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바다숲 조성 성과를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포스코의 기업관인 '포스코 파빌리온'에 상세하게 전시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4079@

전북

새만금단지에 풍력·해양 기업 유치

전북도·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 업무협약

새만금 산업단지내에 추진되는 풍력·해양산업 기업유치에 탄력이 붙었다. 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군산시, (사)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 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 등 6개 기관은 최근 군산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풍력·해양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현재 조성중인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풍력·해양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국내 풍력 및 해양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들은 ▲새만금 산업단

지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풍력·해양산업 클러스터 홍보 ▲기업유치와 관련한 투자설명회와 현장 투어 지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세미나·포럼 개최 ▲국내·외 풍력·해양에너지 관련기업의 투자정보 제공 등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전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은 협약에 앞서 산업단지내 풍력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위해 '새만금 해상풍력 포럼'을 개최했다.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서해안에 위치한 새만금산업단지는 풍력·해양산업의 최적지로서 이곳에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우리나라 저

탄소 녹색성장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며 "풍력 및 해양 관련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산업단지는 오는 2018년까지 새만금지구 북쪽 1870ha에 9개 공구로 나눠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조성이 거의 완료된 1공구 190ha중 155ha는 세계적인 태양광 기업 OCI(주)와 분양 가계약을 체결했으며, 2014년 완공을 목표로 매립 공사가 진행 중인 2공구 255ha는 JY중공업 등 16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전북취재본부=박영진기자 nogsu@



향토음식 경연대회 최근 군산 은파호수공원에서 열린 '2012년 군산 향토음식 전국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농·수산물을 이용해 기량을 겨루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영진기자 nogsu@

지리산 아래봉 철쭉제 구경오세요

27일부터 한달간 열려 품바공연 등 행사 다채

국내 최고의 철쭉 군락지인 지리산 '아래봉 철쭉제'가 2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간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아래봉(해발 1165m) 기슭에서 열린다. 운봉향교와 운봉읍 주관으로 이번 축제는 5월 5일 터울림농악을 시작으로 철쭉 제례, 철쭉가요제, 품바 공연,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체험행사는 농촌 체험행사, 허브 족욕체험, 풍물·곤충 만들기, 허브를 이용한 방향제·비누·차잔 만들기 등이 열린다. 축제기간 행사장 입구 먹거리장터에는 추어탕, 토종 흑돼지 구이, 지리산 허브 잎 술 등 향토 음식이 판매된다. 아래봉 일대 100ha를 뒤흔들며 철쭉 군락지는 매년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탐방객이 다녀간다. 한편 아래봉 철쭉단지 산행코



스는 크게 ▲1코스(허브밸리 주차장~아래봉~팔랑치) ▲2코스(산덕마을~팔랑치~아래봉~허브 밸리) ▲3코스(전북 학생교육원~세걸산~부운치~팔랑치~아래봉~허브 밸리) 등이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남원 중소유통물류센터 본격 영업

남원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가 24일 식정동 현지에서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시는 관내 유통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남원수퍼마켓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해 부지 9254㎡에 지하 1층·지상 2층(2974㎡)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했다.

물류센터는 도매·배송장과 병동·냉장 창고를 비롯해 현대식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공동 구매와 배송을 통해 현지 생산자-영업본부-영업소-소매점 등 5단계로 구성된 유통 단계를 생산자-물류센터-소매점의 3단계로 줄여 중·소 슈퍼마켓들의 물류비 절감으로 대형유통 업체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단신

전북도 수산연구, 어린 참전복 방류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연안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군산시 연도와 부안군 위도 해역에 어린 참전복 20만 마리를 방류한다. 이번 방류되는 어린 참전복은 1년 동안 사육한 것으로 3cm 이상의 크기이다. 참전복은 미역 등 해

조류가 풍부하고 암반이 형성된 고군산군도, 위도, 상·하왕등도 등 외양 해역이 서식지이다. 수산기술연구소는 올해 어린 참전복 방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6개 품종에 2400만 마리의 치어 등을 무상 방류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국립민속국악원 '내사랑 춘향'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이 제82회 춘향제를 기념하기 위해 29~30일 요천 특설무대에서 '창극 내사랑 춘향'을 공연한다. 국립민속국악원 지기학 연출가 가 총 대본과 연출을 맡고 유영애 예술감독의 지도로 70여명의 국악연주단이 출연해 창극 춘향전

의 대중화 및 관광상품화에 중점을 두고 공연할 예정이다. 창극 내사랑 춘향은 극적 전개가 빠르고 소리꾼의 움직임이 활발해 창극 특유의 재미요소를 더욱 부각시켜 춘향·몽룡의 애절한 사랑과 이별을 선보인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 가동

국립공원 내장산 초입 내장산 워터파크 내 음악분수가 5월 5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음악분수는 10월말까지 가동되며 평일은 저녁 8시와 9시 2차례씩, 공휴일은 주간 오후 2시와 5시, 저녁 8시와 9시 4차례씩(1회당 30여분) 공연한다.

시는 현재 40여곡에 26곡을 추가해 모두 66곡의 연주에 맞춰 다양한 분수쇼를 연출할 예정이다.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는 첨단과 자연의 조화를 테마화한 랜드마크 시설로서 고사분수·하트분수·발레분수 등 14종을 갖추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보건소 '비만탈출' 참가자 모집

김제시 보건소(소장 이병철)는 5월 2일부터 실시되는 '비만탈출 프로그램'에 참가자(40명)를 이달말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자는 김제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과체중 이상 시민을 우선해 선발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비만도 검사는 물론 영양섭취 상태, 체력상태 등 비만 관련 기초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 결과에 따른 개별 맞춤형 건강상담도 제공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